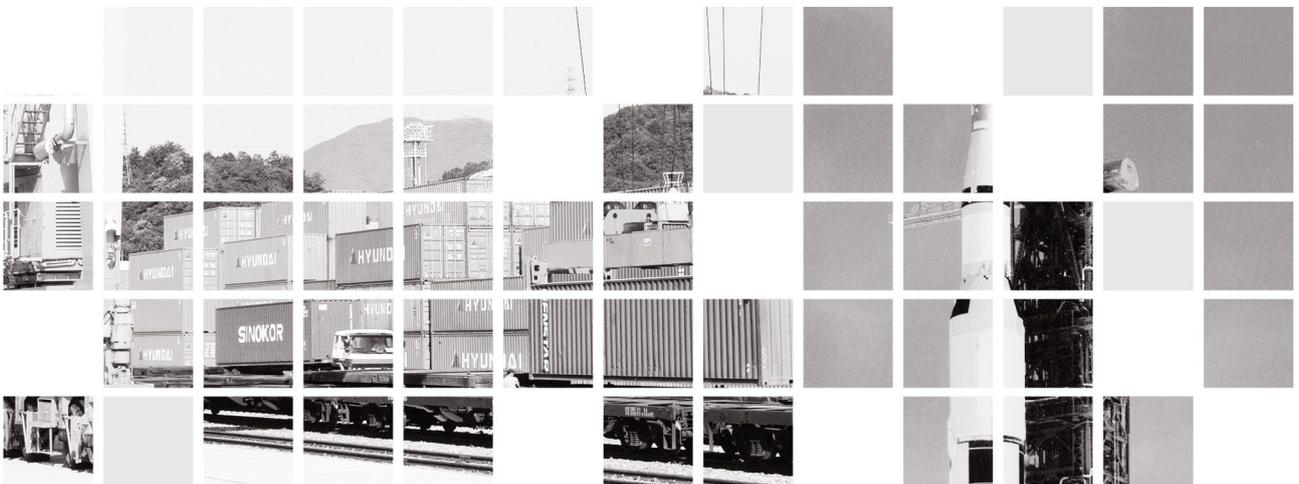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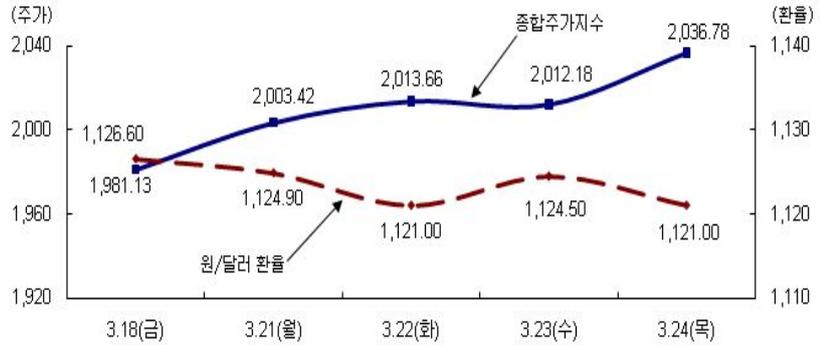
HRI Weekly Economic Review



[국내 금융기관 부실 현황 점검
- 가계보다 중소기업이 더 위험]

週間 主要 經濟 指標 (3.18~3.24)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국내 금융기관 부실 현황 점검 - 가계보다 중소기업이 더 위험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4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조 호 정 선임 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Executive Summary

□ 국내 금융기관 부실 현황 점검- 가계보다 중소기업이 더 위험

■ 국내 금융기관 부실 우려 대두

지난 2011년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에서 시작된 저축은행 부실은 2월 들어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영업 정지로 이어지며 2월말 현재 총 8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되었다. 또한 지난 3월 21일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건설업체의 경영난도 재차 문제가 되면서 금융기관 전반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전반의 부실 규모 현황을 살펴보고 외환위기, 카드사태 당시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금융기관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 국내 금융기관 부실채권 규모 증가 추세

총규모로는 2010년말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전체 부실채권은 전년말대비 약 10% 증가한 38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비율(근정이하여신비율)도 2.4%로 전년말대비 0.6%p 상승하면서 건전성이 악화되었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이 2010년말 24.4조원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7.7조원 대비 3배 증가하였고, 비은행금융기관도 13.7조원으로 2007년의 9.7조원 대비 4.0조원 증가하여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크게 확대되었다. 부실채권비율도 은행이 2010년말 1.86%로 전년말대비 0.62%p 상승하였고, 비은행금융기관도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기관의 부실 증가로 2007년 4.0%에서 2010년말 4.6%로 0.6%p 높아졌다.

대출부문별로는 기업여신의 부실채권 비율이 높게 상승하면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로 예금취급기관의 기업여신 비중은 2005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기업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이 2008년 1.41%에서 2010년 2.55%로 1.14%p 높아졌는데 이는 대부분의 부동산 PF대출이 중소기업여신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PF대출 부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2008년의 83.7조원에서 2010년 9월말 기준 71.8조원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일반은행의 건설 및 부동산업 부실채권비율(근정이하여신비율)은 2010년 6월말 기준 각각 9.54%와 3.48%로 전년말대비 5.34%p, 1.95%p 상승하며 악화되었다. 특히, 2007년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전체 금융기관의 부동산 PF대출 연체율도 2010년 9월말 12.8%로 전년말의 6.4%대비 2배 높아졌다.

■ 외환위기, 카드 사태와의 비교

우리 금융기관의 건강 상태를 외환위기, 카드사태 당시와 자본 적정성(BIS자기자본비율), 건전성(부실채권규모와 비율 및 손실흡수능력), 유동성(예대율)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첫째, (자본 적정성) 예금취급기관의 자본 적정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07년 이후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일반은행과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2010년말 기준 각각 14.6%와 9.1%로 외환위기의 11.8%, 9.0%(1999년)와 카드사태의 12.1%, 7.0%(2004년)보다 높아 자본

적정성은 개선되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 9.1%는 국제결제은행의 권고 기준인 8%보다는 높지만 2007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PF대출의 추가 부실로 향후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둘째, (건전성)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규모는 카드사태 당시보다 더 커졌고 손실흡수능력도 카드사태 당시 수준으로 낮아졌다. 외환위기 이후 총여신 규모가 1999년의 565조원 대비 3배가량 증가한 1,600조원으로 커지면서 부실채권비율은 이전 두 차례 위기보다 낮아졌지만, **2010년말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2000년(연말 기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실규모는 2010년말 6.9조원으로 지난 두 차례 위기의 5.0조원(1999년), 3.9조원(2004년)보다 더 커졌고 은행권의 부실도 24.4조원으로 카드사태 당시의 13.9조원(2004년)보다 높아졌다. 또한,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적립비율도 2010년말 은행이 111.2%로 카드사태(2004년 104.5%)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저축은행은 58.2%로 카드사태 당시(2004년 61.1%)보다 더 나빠졌다.

셋째, (유동성) 2007년 이후 은행 예대율이 하락하면서 유동성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외환위기, 카드사태보다는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높은 예대율은 위협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은행 예대율은 2010년말 112.5%**▶**탈산 기준 1999년 외환위기時 84%(1999년), 카드사태時 104%(2004년) 보다는 여전히 높다.

특히, 은행 원화예수금의 60%를 차지하는 정기예금의 단기화가 심화되고 있어 위기 발생時 급격한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높이는 정기예금의 구조를 보면, 6개월 미만 정기예금 비중이 2004년 6.5%에서 2010년말 14.9%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은행 예금의 단기화가 심화되고 있다.

■ 시사점과 과제

최근 부동산 PF대출 부실과 이로 인한 부실채권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기관 전반의 건강 상태는 외환위기, 카드사태 당시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의 총여신 규모가 1999년 이후 3배 이상 확대되었고 최근 금융기관의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도 2007년 이후 악화되고 있어 위기 발생 시 저축은행에서 시작된 부실이 빠르게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저축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확충하여 자본 적정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PF대출 부실이 지속되어 향후 금융시장 부실 도미노로 연결되지 않도록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장기 거치성 예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은행 예금의 단기화를 예방하고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 확대가 추가적인 불안 심리 조성으로 이어져 외국인투자 자금이 급격히 유출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 금융기관 부실 현황 점검

1. 국내 금융기관 부실 우려 대두

○ 저축은행 부실 확대로 영업 정지와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금융기관 전반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지난 1월 이후 부산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됨
 - 지난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의 부실기관 지정 및 영업정지로 시작된 저축은행 부실은 2월 들어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영업 정지로 이어졌고,뱅크런 등으로 인한 자진 휴업까지 이어지며 총 8곳의 저축은행 영업이 정지됨
 - 8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지난 2월 18~22일 사이 저축은행에서는 1조원 이상의 예금이 인출되는 뱅크런(Bank Run)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 최근 LIG건설의 법정관리로 건설업계의 경영난도 재차 문제가 되고 있음
 - 지난 3월 21일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7위(2010년 기준)를 기록한 LIG건설이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미분양으로 인해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심화되면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건설사들의 줄도산에 대한 우려도 증폭
- 최근 부동산 PF 연체 등으로 인한 저축은행 부실과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전반의 부실 규모 점검의 필요성이 높아짐

<부실 저축은행^{주)} 현황>

일 자	저축은행명
2010년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
2010년 2월 17일	부산, 대전저축은행
2010년 2월 19일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저축은행
2010년 2월 22일	도민저축은행

자료: 금융감독원.

주: 부실 기관 지정 및 6개월간 영업 정지됨.

<100대 건설사 중 부실업체 현황>

워크아웃 기업	기업회생절차 기업
금호산업(12위)	남양건설(33위)
경남기업(17위)	LIG건설(47위,신청)
벽산건설(23위)	현진(57)
풍림산업(24위)	신성건설(65)
신동아건설(30위)	월드건설(71)
남광토건(37위)	성원건설(75)
외 12개 업체	한솔건설(100)

자료: 보도 종합.

주: ()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임.

2.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 증가 추세

○ (총규모)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¹⁾은 크게 증가하였음

- 2010년말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전체 부실채권은 전년말대비 약 10조원 증가한 38조원 이상으로 추정됨

·2010년말 현재 추정된 국내 금융기관의 총 부실채권 규모는 38.1조원에 달하며 이는 2009년말의 28.4조원 대비 9.7조원 증가하였고,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의 16.7조원 대비로는 2배 이상 증가

·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비율도 2010년말 2.4%로 전년말대비 0.6%p 상승하였고, 2007년말 대비로는 1.1%p 높아지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악화

<국내 금융기관의 총 부실채권 규모와 부실채권비율 >

(단위: 조원, %)

	2007	2008	2009	2010		
				6월말	9월말	12월말
부실채권규모	16.7	25.4	28.4	38.1	43.3	38.1
국내은행	7.7	14.7	16.0	25.6	30.3	24.4
비은행금융기관	9.1	10.7	12.9	12.3	12.9	13.7
부실채권비율(%)	1.3	1.7	1.8	2.4	2.7	2.4

자료: 금융감독원, 현대경제연구원.

주: 1) 2010년 9월말 중 저축은행은 6월말 자료로, 2010년말의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여신전문금융기관과 신탁이 9월말 자료로 대체.

2) 부실채권비율은 고정이하여신 비율임.

○ (금융기관별) 금융기관 총여신 규모의 큰 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 또한 급증하면서 부실채권비율도 상승

-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와 비율 모두 전년말대비 크게 증가

·2010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총 부실채권 규모는 24.4조원으로 전분기의 30.3조원에 비해서는 5.9조원 줄어들었으나, 2009년말 대비로는 9.7조원 증가

·부실채권비율도 2010년말 현재 1.86%로 9월말의 2.32%에 비해 0.46%p 크게 감소하였으나 전년말대비로는 0.62%p 상승

1) 부실채권이란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른 여신 분류(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중 '고정여신(sub-standard) 이하의 부실 여신'을 의미하며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이 이에 속함. 즉 '고정이하 여신'의 비율은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됨.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별로는 2010년말 기준 우리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3.24%, 특수은행 중에는 농협과 수협이 각각 2.57%와 3.86%로 높게 나타남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와 비율 추이> (단위: 조원, %)

	2007	2008	2009		2010		
			6월말	12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부 실채권비율	0.72	1.14	1.51	1.24	1.94	2.32	1.86
총여신	1,073.8	1,288.1	1,301.0	1,285.8	1,316.2	1,310.2	1,308.9
부실채권잔액	7.7	14.7	19.6	16.0	25.6	30.3	24.4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저축은행, 여신전문기관 등의 부실 규모 확대로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채권비율도 상승세

- 국내 비은행금융기관의 총 부실채권 규모는 2010년말 13.7조원으로 6월말의 12.3조원 대비로 1.4조원 증가하였고, 부실채권비율도 4.6%로 6월말대비 0.4%p 상승
- 이는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로 인해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대출 부실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와 비율> (단위: 조원, %)

	2007	2008	2009	2010	
				6월말	12월말
저축은행	4.1(8.8%)	5.0(9.1%)	6.0(9.0%)	6.2(9.7%)	6.9(10.6%)
여신전문금융회사	1.8(2.6%)	2.1(2.8%)	2.1(2.5%)	2.3(2.7%)	2.7(3.0%)
보험회사	1.5(2.1%)	1.5(1.9%)	1.5(1.8%)	0.8(1.0%)	1.0(1.1%)
증권회사	0.9(5.0%)	1.3(9.1%)	2.3(12.8)	2.2(6.5%)	2.0(7.3%)
기타	0.7(3.6%)	0.7(3.5%)	0.9(3.6%)	1.0(4.1%)	1.2(4.3%)
합계	9.0(4.0%)	10.7(4.3%)	12.9(4.7%)	12.3(4.2%)	13.7(4.6%)

자료: 금융감독원 통계월보, 현대경제연구원.

주: 1) 기타는 신탁과 증금사의 합계임.

2) 2010년 12월은 여신전문금융기관과 기타 중 신탁은 9월말 자료로 대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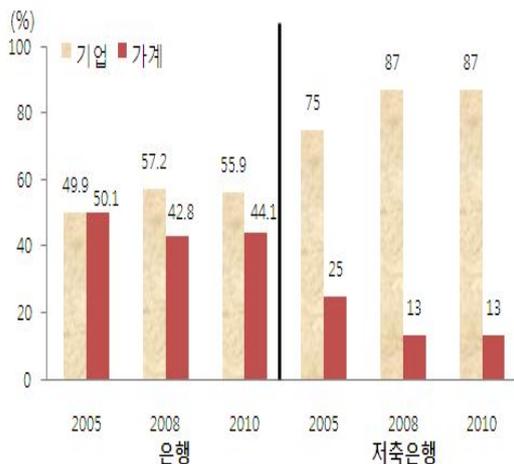
3) ()안은 고정이하여신 비율임.

○ (대출부문별) 기업여신의 부실채권 비율이 높게 상승하며 건전성이 악화

- 중소기업의 여신 증가로 예금취급기관의 기업여신 비중이 높아짐
- 은행의 기업/가계 여신 비중은 2005년 50:50에서 중소기업의 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2010년 기준 기업 부문이 56%로 높아짐

- 한편, 저축은행의 전체 여신 중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부동산 PF 대출의 증가 등으로 인해 2005년 75%에서 2010년 87%로 12%p 상승
- **기업여신의 부실채권 비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악화**
 - 국내은행의 기업여신 중 부실채권비율은 2008년 1.41%에서 2010년말 2.55% 1.14%p 높아졌는데, 이는 부동산 PF의 부실채권이 대부분 중소기업 여신으로 분류되면서 부실채권비율이 2008년 2.60%에서 2010년 16.06%로 상승한데 기인
 - 반면, 가계여신과 신용카드 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세가 유지됨. 가계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은 2008년 0.54%에서 2010년말 0.56%를 기록하였고, 신용카드대출은 동기간 1.16%에서 0.97%로 하락함

<기업/가계 여신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통계시스템.

<국내은행의 부문별 부실채권 비율>

		부실채권 비율 (%)					
		'07	'08	2009		2010	
				6월	12월	6월	12월
기업여신	0.80	1.41	1.91	1.60	2.66	2.55	
중소기업	0.99	1.93	2.49	1.80	3.05	3.09	
	부동산 PF	0.64	2.60	4.01	2.32	9.60	16.06
가계여신	0.54	0.54	0.64	0.49	0.50	0.56	
주택담보대출	0.44	0.42	0.48	0.38	0.37	0.49	
신용카드	0.96	1.16	1.52	1.11	1.19	0.97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업종별) 건설업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PF대출 부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건설 및 부동산업의 업황 부진으로 이들 산업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일반은행의 산업별 대출금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건설업이 2009년말 4.20%에서 2010년 6월 현재 9.54%로 5.34%p 높아졌고, 부동산업과 조선업도 동기간 각각 1.95%p, 3.33%p 증가하였음
- 특히, 전 금융기관의 PF대출 연체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

- 한편, 전체 금융기관의 PF 대출 연체율은 2007년 2.93%에서 급등하면서 2010년 6월말 기준 7.31%로 상승하였고, 최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9월말 기준 12.8%로 전년말대비 2배 이상 부실이 증가됨
- 특히,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은행권의 PF대출 연체율도 2009년말 1.67%에서 2010년말 4.25%로 2.58%p 상승하였고, 저축은행은 동기간 10.6%에서 24.3%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됨

<산업별 대출금의 고정이하여신 비율>
(%, %p)

	2008	2009 (A)	2010.6 (B)	증감 (B-A)
건설업	3.24	4.20	9.54	5.34
부동산업	1.62	1.53	3.48	1.95
조선업	1.28	2.05	5.38	3.33
해운업	0.14	1.77	2.12	0.35

<금융기관의 PF대출 연체율 추이>
(단위: %)

	'07	'08	2009		2010	
			6월	12월	6월	12월
전체	2.9	4.4	5.9	6.4	7.3	12.8
은행	0.5	1.1	2.6	1.7	2.9	4.25
저축은행	11.6	13.0	9.6	10.6	8.6	24.3
보험사	2.8	2.4	4.1	4.6	7.0	-
증권사	4.6	13.9	24.5	30.3	25.3	-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0.11)
주: 일반은행 기준임.

자료: 국정감사 자료, 금융감독원 통계시스템.
주: 전체 연체율의 2010년 12월말은 9월말 자료이며, 2010년 12월말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은 추정치임.

- 그러나 건설업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2008년 이후 감소세
- 금융권의 PF대출은 부동산경기 호황으로 2008년말까지 급증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른 신규취급 억제 및 기존 PF대출 부실 채권의 캠프 매각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
- 국내 금융기관의 PF대출 잔액은 2009년말 82.4조원에서 2010년 9월말 기준 71.8조원으로 축소되었고, 특히 전체 대출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은행의 잔액이 2010년말 38.7로 9월보다 4조원 감소함에 따라 감소세는 지속될 것임

<국내 금융기관의 PF대출 잔액 규모>

(단위: 조원)

	2007	2008	2009	2010	
				6월말	9월말
합 계	70.5	83.1	82.4	74.3	71.8
은행	41.8	52.5	51.0	44.9	42.7
저축은행	12.1	11.5	11.8	12.0	12.4
보험사	4.6	5.5	5.7	5.4	5.3
기 타	12.5	13.6	13.9	12.0	11.4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주: 1) 기타는 증권사, 여신전문기관 및 상호금융 등임.

3. 외환위기, 카드 사태와의 비교²⁾

○ (자본 적정성) 예금취급기관의 BIS 자기자본비율³⁾이 외환위기, 카드사태 보다 높아 자본 적정성은 개선되었으나,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

-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8% 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자본 적정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일반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0년말 현재 14.6%로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당시보다 높음

- 그러나,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의 권고안인 8% 보다는 높으나 2007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

· 한편,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도 2010년말 기준 9.1%로 권고안인 8%는 넘었으나 2007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고 중소 건설사의 PF대출 부실이 계속 증가될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카드사태 수준으로 하락할 수도 있음

<국내 예금취급기관의 BIS 자기자본비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통계시스템.
주: 연도말 기준임.

2) 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 건전성, 유동성을 각각 BIS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규모 및 비율과 대손충당금비율, 예대율의 지표를 외환위기, 카드사태 당시와 비교.
3)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은 1988년 7월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 8%이상을 유지하는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였음.

○ (건전성)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규모는 카드사태 당시보다 더 확대되었고, 부실채권에 대한 손실흡수능력도 약화되고 있음

- 2010년말 기준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비율은 2.4%로 외환위기, 카드사태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
- 금융기관별 부실채권비율도 카드사태가 본격화됐던 2003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고 저축은행의 부실채권비율도 10%대로 카드사태의 13%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기간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율 추이>

(%)

	외환위기		카드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998	1999	2003	2004	2005	2008	2009	2010
은행	7.65	12.9	2.6	1.9	1.2	1.1	1.2	1.9
저축은행	-	28.2	11.8	13.0	13.8	9.1	9.3	10.6
여신전문	-	25.2	10.5	6.7	6.8	2.8	2.5	3.0
보험사	-	-	4.1	3.6	3.4	1.9	1.8	1.1
증권사	-	-	29.4	21.8	11.9	9.1	12.7	7.3
기타	-	15.0	6.4	6.0	5.2	3.5	3.6	4.3
합계	-	14.5	3.7	2.8	2.3	1.7	1.8	2.4

자료: 금융감독원 통계시스템, 현대경제연구원.

주: 1) 금융기관별 고정이하여신비율임.

2) 2010년은 여신전문기관과 기타 중 실험은 2010년 9월말 자료로 대체.

- 그러나, 금융기관의 총 부실채권 규모는 연말 기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여신은 1999년 82.1조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0년 38.1조원을 기록하면서 2000년 이후 가장 높게 증가

- 특히, 저축은행의 부실규모는 두 차례의 위기 때보다 더 커졌고, 은행의 부실규모도 카드사태 당시보다 확대되었음

- 금융기관별 부실여신 규모는 2010년 기준 은행이 24.4조원으로 카드사태 당시 2003년의 18.7조원 보다 증가하였고, 저축은행의 부실규모도 6.9조원으로 IMF의 1999년 5.0조원과 카드사태 2003년 2.9조원보다 확대되었음

<기간별 총여신과 고정이하여신 규모>



<금융기관별 부실규모 추이>4)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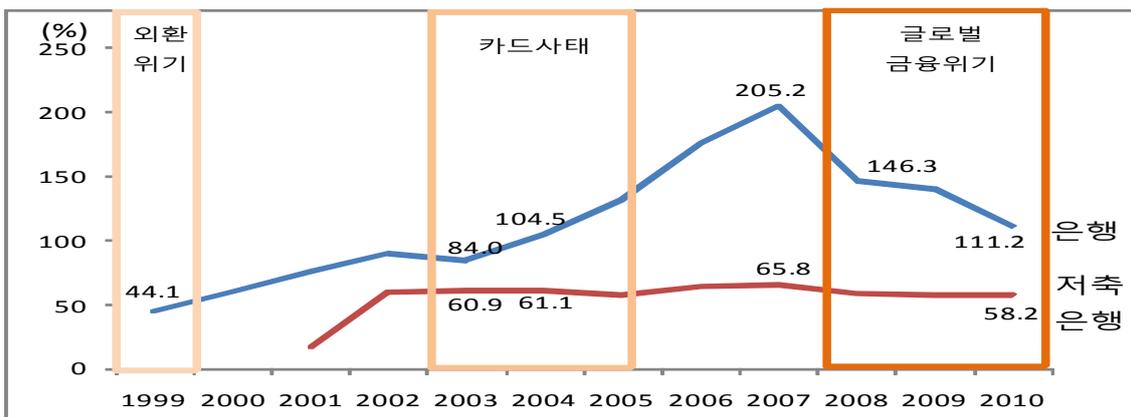
	99	카드사태			글로벌금융위기		
		03	04	05	08	09	10
은행	61.0	18.7	13.9	9.7	14.7	16.0	24.4
저축은행	5.0	2.9	3.9	4.9	5.0	6.1	6.9
여신전문	12.7	5.5	2.6	3.0	2.1	2.1	2.7
보험사	.	2.2	2.0	2.0	1.5	1.5	1.0
증권사	0.0	2.0	1.5	1.3	1.3	2.3	2.0
기타	3.4	0.7	0.8	0.7	0.8	0.9	1.2

자료: 금융감독원 통계시스템.

주: 2010년은 여신전문기관과 기타 중 신탁은 9월말 자료로 대체.

- 부실여신 발생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을 통한 손실흡수능력이 이전 2차례 위기에 비해서는 높아졌으나 2007년 이후 크게 약화되고 있음
-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은행은 2007년말 205.2%에서 2010년말 111.2%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저축은행도 동기간 65.8%에서 58.2로 낮아짐
- 한편, 은행의 적립비율은 카드사태 당시와 비슷해졌고, 저축은행은 카드사태 당시보다 소폭 하락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주: 1)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임.

2) 은행은 국내은행계이며, 일반은행의 적립비율은 이보다 소폭 낮은 수준임.

4) 금융감독원의 1999년 금융기관 부실채권 규모(66.7조원)와는 차이가 있으나, 금융감독원의 통계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여 고정이하여신 규모와 비율을 계산하였음.

○ (유동성) 2007년 이후 예금취급기관의 예대율이 하락하면서 유동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두 차례의 위기 때보다 여전히 높음

- 최근 은행의 예대율⁵⁾ 하락에 따라 유동성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두 차례의 위기보다 높은 수준임

· 일반은행의 예대율은 2001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2007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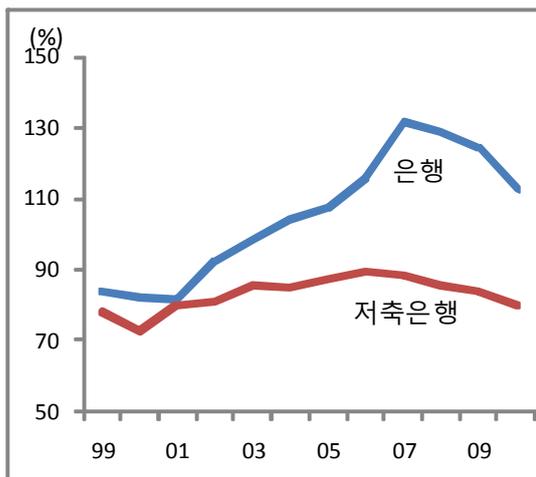
- 저축은행의 예대율도 자산관리공사로 매각된 부동산 PF대출채권 등으로 2006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으나 수취 채권에 대한 사후정산 이행 담보를 위한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향후 유동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음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불안과 저금리로 인해 단기 정기 예금 비중이 카드사태보다 더욱 늘어나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은행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높이는 정기에금이 6개월 미만의 단기성 예치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위기 발생時 급격한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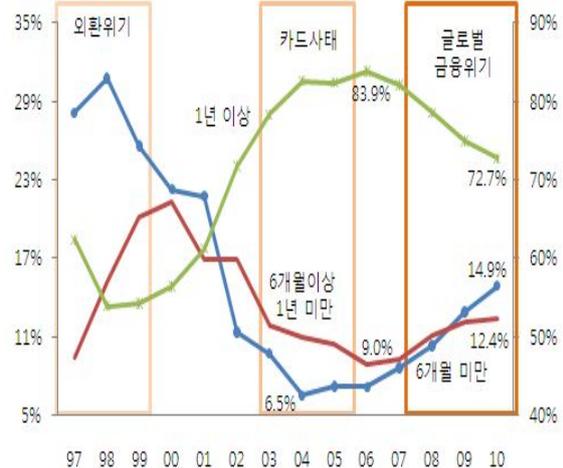
· 은행의 6개월 미만의 정기에금 비중은 2004년 6.5%에서 2010년말 14.9%로 2배 이상 증가

<일반은행의 예대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현대경제연구원.
주: 말잔 기준임.

<정기에금의 기간별 비중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예금은행의 연간 자료 기준임.

5) 금융감독원의 원화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 100%) 평잔 기준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자료가 말잔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예대율과는 차이가 있으나 1999년 이후 추세를 볼 수는 있음.

4. 시사점과 과제

1) 시사점

- 부동산 PF대출 부실에 따른 부실채권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기관 전반의 건강 상태는 외환위기, 카드사태 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금융기관 전반의 부실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기관은 자본적정성, 건전성, 유동성 지표 모두 외환위기와 카드사태보다 양호한 수준임
 - 그러나, 부실채권규모와 손실흡수능력 및 은행예금의 단기화 등은 카드사태보다 심각해짐
 - 주요국 은행의 무수익여신비율 추이를 비교해 봐도 국내 은행의 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주요국 은행의 무수익여신비율도 2007년 이후 크게 상승하여 미국이 2007년 1.4%에서 2010년 3월 5.5%로 4%p 이상 급등하였고, 영국도 2009년말 3.5%로 2007년 대비 2.6%p 상승⁶⁾
 - 반면, 한국의 은행 무수익여신 비율은 2007년 0.7%에서 2010년 3월 1.5%로 두 배 이상 상승하였으나 주요국 대비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2007년말 대비 2009년에 2.6%p, 0.7%p 상승하면서 은행의 건전성이 하락함)
- 저축은행 부실이 금융기관 전체의 부실 도미노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국내 금융기관의 총여신 규모가 2003년 이후 2배 이상 확대되었고 최근 금융기관의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어 위기 발생時 저축은행에서 시작된 부실이 빠르게 확대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함
 - 특히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을 통한 부실 여신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2007년 이후 계속 악화되고 있어, 자금의 단기화 등으로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의 안정성도 하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요구됨

6) IMF, GFSR(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10년 10월.

7) p. 11, 참조 1) 국내 금융기관의 총여신과 연체율 추이.

2) 과제

○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확충하여 자본 적정성을 점차 높여 나가야 함

- 기존 금융기관 부실과 건설경기 침체 지속과 금리상승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 가능한 금융기관 부실채권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최근 국내 건설 경기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의 부동산PF 부실과 관련이 높은 중소형(40.7⁸⁾, 지방(46.2)의 건설·산업 경기는 여전히 매우 부진한 상황
- 특히, 2010년 내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시중금리가 기준금리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정이 높아지면서 2011년 들어 크게 상승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은 신규 부실채권 발생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아울러, 부동산 PF 관련 부실채권의 유동화와 자기자본 확충으로 저축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높여 나가야 함

○ 부동산 PF대출 부실이 지속되어 향후 금융시장의 부실 도미노로 연결되지 않도록 저축은행 뿐 아니라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함

- 저축은행에서 시작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여타 금융권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불안 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안정화 노력이 필요
- 한편, 2011년 2월중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가 2003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는 등 금리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저신용등급(7~10등급)의 기업과 가계 대출⁹⁾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에 저신용등급의 대출 금리 상승폭을 일정 기간별로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이들의 대출이 빠르게 부실화 되는 것을 방지해야함

8) 건설산업BSI는 2010년 8월 50.1에서 점차 개선되어 2011년 1월 72.4로 상승하였으나, 이는 규모별로는 대형(92.9)과 지역별로는 서울(90.5)의 건설·산업경기 상승에 기인.

9) 2010년 6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저신용등급 대출 비중은 가계대출 60.3%, 중소기업대출 58.3%로 매우 높음.

- 한편, 각 금융기관의 감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감독권의 다변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
-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에 건전성 지표 발표를 매 6개월에서 은행과 같이 분기별로 변경하여 건전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함

○ 장기 거치성 예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은행 예금의 단기화를 낮추고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높여야 함

- 은행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높이는 1년 이상 정기예금의 비중이 2005년 83.9%에서 2010년 72.7%로 11.2%p 하락한 바, 이와 같은 추세의 반전을 위하여 장기 거치성 예금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가 필요함

○ 또한,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 확대가 추가적인 불안 심리 조성으로 이어져 외국인투자자금이 급격히 유출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

- 외국인투자자에게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지 않도록 해야 함
- 2010년 국내 코스피(KOSPI) 시장에서 21.6조원의 순매수를 기록하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2011년 들어 1월1일부터 2월18일까지 총 2조 1,101억 원을 순매도하였음
- 최근 선진국의 안정적 경기 회복 기조와 일본 대지진 이슬람 자유화 등에 따른 불안요인으로 글로벌 투자자금의 신흥국 이탈 현상이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 부실 확대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여 외국인 투자자금의 지속적 순유출로 연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정책연구실 조호정 선임연구원 (hjss@hri.co.kr, 2072-6217)

참조 1) 국내 금융기관의 총여신과 연체율 추이

- 국내 금융기관의 총여신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 국내 금융기관의 총여신 규모는 2010년 12월말 기준 1,607.1조원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말 1,301.6조원 대비로 3년 만에 309.6조원(23%)이 증가
- 은행 여신이 동기간 235.1조원(21%) 크게 증가하였고 저축은행 17.8조원(37%), 여신전문금융기관과 보험사도 각각 19.2조원(27.1%)과 17.3조원(23%)이 증가됨

<국내 금융기관별 여신 규모 추이>

(단위: 조원)

	2007	2008	2009		2010		
			6월말	12월말	6월말	12월말	
은 행	1,073.8	1,288.1	1,301.0	1,285.8	1,316.2	1,308.9	
비 의 여 신 전 문 금 융 기 관	저축은행	47.3	55.2	56.6	63.7	63.4	65.1
	여신전문금융회사	70.7	76.2	73.2	81.6	86.0	89.9
	보 험 사	72.2	80.3	79.2	84.9	84.9	89.5
	증 권 사	18.7	14.6	24.6	18.3	33.0	26.8
	기 타	18.8	21.8	22.5	25.1	25.5	26.9
합 계	1,301.6	1,535.8	1,557.2	1,560.5	1,609.1	1,607.1	

자료: 금융감독원 통계월보, 현대경제연구원.

주: 1) 기타는 신탁과 증금사의 합계임.

2) 2010년 12월 중 여신전문기관과 기타 중 신탁은 9월말 자료로 대체됨.

- 전체 금융기관의 연체율도 전년말대비 크게 상승

- 우선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2010년말 기준 0.91%로 전년말대비 0.17%p 상승하였고 부문별로는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1.32%, 주택담보대출도 0.52%로 전년말대비 각각 0.23%p, 0.19%p 높아짐
- 저축은행은 2010년 6월말 기준 11.99%로 전년말대비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12월말 기준으로 20% 이상의 연체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국내 금융기관의 연체율 추이>

(단위: %, %p)

	2007	2008	2009(A)	2010		B-A
				6월말	12월말(B)	
은 행	0.74	1.08	0.74	0.99	0.91	0.17
중소기업	1.00	1.70	1.09	1.46	1.32	0.23
	주택담보	0.43	0.47	0.33	0.44	0.52
저축은행	14.67	15.54	13.22	11.99	-	
카드사	3.79	3.43	2.23	1.84	1.83	△0.40
보험사	3.9	3.76	3.39	2.67	1.42	△1.97

자료: 국정감사 자료, 금융감독원 통계시스템.

주: 카드, 보험사는 2010년 9월말 기준임.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9년					2010					2011년 연간(E)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6	-4.9	-0.7	1.6	5.0	2.9	3.7	1.7	2.6	3.2	3.0
유로 지역	-4.1	-2.5	-0.1	0.4	0.2	1.8	0.4	1.0	0.3	0.3	1.5
일본	-6.3	-19.9	11.3	-1.2	5.7	4.3	6.8	3.0	4.5	-1.1	1.6
중국	8.7	6.2	7.9	9.1	10.7	10.3	11.9	11.1	10.6	9.8	9.6
한국	0.2	-4.3	-2.2	1.0	6.0	6.1	8.1	7.2	4.4	4.8	4.3

주: 1) 2011년 전망치(E)는 IMF 2011년 1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3월18일	3월24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9	3.30	3.28	3.41	0.13%p
	엔/달러	92.93	88.43	81.19	79.18	80.91	1.73¥
	달러/유로	1.4413	1.2238	1.3350	1.4014	1.4101	0.0087\$
	다우존스지수(p)	10,428	9,774	11,578	11,859	12,171	312p
	닛케이지수(p)	10,655	9,383	10,229	9,207	9,435	228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6	3.38	3.65	3.66	0.01%p
	원/달러(원)	1,164.5	1,222.2	1,134.8	1,126.6	1,121.0	-5.6원
	코스피지수(p)	1,682.8	1,698.6	2,051.0	1,981.1	2,036.8	55.7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3월18일	3월24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79.35	75.77	91.40	101.22	105.26	4.04\$
	Dubai	78.06	73.14	88.80	110.11	109.42	-0.69\$
CRB선물지수	283.38	258.52	332.80	351.15	358.48	7.33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